

농두지

2021 | 겨울 | 46호

녹두칼럼
백진 서울대 교수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주요뉴스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유족인터뷰
전장홍
참여자 전기항의 고손자

지역대담
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

지역단체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흥선대원군 효유문



『흥선대원군 효유문』 1894년, 117×27cm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5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동학농민군이 1894년 8~9월 2차 봉기를 준비하던 때 흥선대원군이 각 지역에 내린 농민군 해산 권고문이다. 효유문은 국가기강 해이에 따른 기득권층의 탐학(貪虐)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각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여 덕의를 펼치겠다는 것과 군대를 해산하고 생업에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원군은 농민군에게 해산을 권고한 이 문서와는 반대로 경복궁을 무단점령한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김개남 등에게 밀사와 밀지를 보내 봉기를 유도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소장한 이 문서는 흥선대원군이 몇 차례 내린 것으로 알려진 효유문 중 유일하게 전해지는 실물이다. 대원군과 동학농민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효유문의 내용은 수록(隨錄), 소모사실(募募事實), 속음청사(續陰晴史) 등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목차

- 04 **녹두칼럼**
백 진 / 서울대 교수
- 07 **뉴스초점**
정읍시,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미술전
동학농민혁명 소리극 시즌3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대전시립연정국악단 '금강, 그 빛나는 눈동자' 공연
- 14 **기념재단 포커스**
기념재단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참여자 조사위원회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 자문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대상 추모관 전시 설명회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기념공원 공사현장 방문
- 18 **참여자 유족인터뷰**
전장홍 / 참여자 전기항의 고손자



- 27 **지역대담**
문영식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
- 36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 41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 49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전북 원주군)

대둔산의 형제바위는 공주 우금티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 잔여세력이 숨어들었다가 1895년 2월 18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어린 소년 한 명을 제외하고 25명 전원이 전사한 항전지이다. 이 전적비는 2001년 10월 10일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항전지가 바라보이는 대둔산 등산로에 건립하였다.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 조성에 관한 단상



백 진 서울대 교수

거대역사담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십만 년을 여행하며 인류의 진화를 훑는다. 호모 사피엔스의 특별한 점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언급되기도 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발판으로 이제는 신적 존재로 부상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 다른 신소리를 하고 싶다.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함은 다른 데에 있다. 족벌이나 부족을 넘어서서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상황을 풀어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식의 등가적 균형이 아닌 상황적 균형을 찾아가는 고차원의 정의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멸이 아닌 공동의 선에 대한 감(感)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의나 공동의 선은 역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여도 여전히 그것은 인간이 인간임을 증거 하는 이정표로 빛을 발하고 있다. BC 472년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이라는 작품을 올리던 그리스의 비극극장은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을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동의 자각을 만 오천여 시민들 앞에 펼쳐 보인 것이다.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못잖은 인류의 신기한 발명품이다.

근현대에 들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인권 관련 기념공간도 그러하다. 고도의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 중 하나이다. 불평등과 억압에 맞서 차별 없는 상호호혜, 자유, 평등을 지향하는 선각자와 민초들의 투쟁은 관성에 젖은 역사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트는 변곡점이다. 기념공간은 사건이 벌어졌던 순간의 승자와 패자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정립하는 반성의 장을 시간의 뒤안길에서 열어준다. ‘뒤안길’은 사실 이중적이다. 한편으론 뜻깊은 것이라도 잊히도록 만든다. 야속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현재’

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낸다. ‘현재’란 눈앞에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지만 때론 불투명의 베일에 쌓여있는 경우도 많다. 비로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보이는 것은 오히려 시간의 뒤편에서인 것이다. 누란지위의 아테네를 구하고자 살라미 해협에서 혼신의 힘으로 싸워야 했던 시민군이 그 전쟁을 반추해보고 인류공동의 삶의 가치를 고민하게 된 것은 10여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편에서였다. 천재적인 작가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 아크로 폴리스 남사면의 디오니소스 극장이 바로 ‘뒤편’의 진실을 보는 장을 열어준 것이다. 기념공간 역시 ‘뒤편’의 무대이다. 망각이나 허상이 아니라 진실이 마침내 보이도록 개안시켜주는 공적중재의 장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새삼스레 발견하게 하는 공동의 자각이 일어나는 곳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공간이 이미 황토현, 석대들 등에 들어섰다. 주제넘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추모의 마음을 받아주고, 미래를 향한 인류보편가치를 일깨우는 진취성을 드러내는 기념공간으로는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을 위치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 번을 가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글로 말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회자되는 그런 기념공간이 아직 조성되지 못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이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그 정신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꺾고 실망을 안기는 일이기에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더 다듬어 나갈 기회가 있을 것이며, 또 새로 조성될 기념공간 중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도 나올 것이라고 보이기에 여전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뒹군다.

이런 점에서 고창 무장기포지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기념공간은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폐부를 찢어놓는 천추의 억울함은 티끌로 날려버리고 용서, 화해, 포용의 통판석을 마음껏 밟고 이제 자유와 평등의 시대로 전진하라는 동학농민군의 웅골찬 음성이 들리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는 물론 실망스럽다. 눈발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방문한 무장기포 기념공원은 조각, 표지석, 비문, 포토존, 화장실 등이 여기저기 난립하여 조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4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칠게 변형시켜온 이형(異形)들이 마치 원형인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었다. 구암천이 근대화 과정에서 직방화되었고, 국도 22호선이 관통하면서 남과 북으로 갈리었다. 천변의 기포지는 표고가 1.5미터 이상 복토되었으며, 수구막이 숲도 사라지고 없다. 천변 모래밭의 농민군을 향해 버드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수구막이 언덕에서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는 포고문을 찌렁찌렁 낭독하던 당시를 그려보는 상상의 나래를 도무지 펼 수가 없었다.

사라진 것을 복원하는 것은 사실은 창작이며 시뮬레이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복원의 개념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근대화의 가위로 싹둑싹둑 재단해버린 현황이 개념 없는 일을 벌인 것이라는 것도 명확하다. 완전복원과 현황유지 사이의 제3의 길을 조심스럽게 모색해야 한다. 지적도, 지표조사, 항공사진, 구술채록, 민요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주요부 원형을 일부 복원하는 것이다. 복원된 부분과 근대화 과정에서 투박하게 변형된 부분이 적나라한 대조를 이루어 1894년으로 빠져들어 갔다가 1970년대로, 다시 2021년으로, 그리고 2100년으로 부유하도록 상상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거기에 동학농민군의 기포라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얹히며 우리를 사유와 자각의 순간으로 인도할 것이다.

서두에서 그리스의 비극극장 이야기를 꺼냈었다. 고도의 정의를 고민하던 인류의 위대한 문화자산이다. 21세기의 인류가 내어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문화자산은 인권 관련 기념공간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동아시아에서 맨 먼저 주창한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세계사적 위상을 갖는 운동이다. 기념공간 조성에 있어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세계시민사회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장소가 나와야 할 때이다. 무장기포지에 들어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되길 고대해본다.

백 진 |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예일대와 펜실바니아대에서 건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펜실바니아 주립대, 동경대 등에서 재직한 후 2010년부터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 조성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저서로는 *Nothingness: Tadao Ando's Christian Sacred Space* (Routledge, 2009), *Architecture as the Ethics of Climate* (Routledge, 2016), *풍경류형* (효형출판사, 2013)이 있다.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내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

정읍시는 지난 9월 13일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제295호) 내 전봉준장군 동상을 철거하였다. 이 동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추진된 ‘황토현전적지정화사업’ 일환으로 1987년 10월 건립되었다. 문제는, 동상 제작자 김경승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인사라는 사실로 인해 동상 제막 이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동학농민혁명은 반일 민족항쟁의 우뚝한 봉우리인데, 그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 동상을 친일인사가 제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이 동상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국민모금으로 새로운 기념시설물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4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승인을 받아 동상을 철거·분해하여 정읍시립박물관으로 옮겼다.

동상이 철거된 자리에는 정읍시에서 구성한 「전봉준장군동상재건립추진위원회」가 전국 공모를 통해 동학농민군 행렬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임영선(가천대 교수) 작가의 작품 ‘불멸, 바람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제작에 들어갔다. 새롭게 건립될 기념시설물은 2022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과 함께 제막될 예정이다.



▣ 철거 전 동상



▣ 동상 철거 장면



▣ 재건립 예정작 ‘불멸, 바람길’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지난 2021년 10월 22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가세로(태안군수),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송낙문(태안군의회 부의장), 김기두·김영인·박용성·전재욱(군의원), 정낙추(태안문화원장), 정활채(경찰서장), 성장현(해양경찰서장), 김상식(소방서장), 정용주(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장명진(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태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 및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문영식 회장이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 위촉되었다.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내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라남도 장흥군 석대들의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이어 지자체로는 세 번째로 건립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 구성은 첫 번째 「인권존중과 평등의 세상을 꿈꾸다」, 두 번째 「농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일어서다」, 세 번째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일본에 맞서다」, 네 번째 「저마다 하늘님 되는 세상을 향하여」 등 네 주제로 구성되었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미술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감영 선화당 일대에서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문병학) 주최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미술전이 개최되었다. 미술전이 열린 전라감영 내 선화당은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했던 집강소의 총 본부격인 대도소를 설치하였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여태명(서예), 진창윤(회화), 이기홍(서양화), 김정아(서양화), 김용련(조소·설치), 정하영(설치) 등 전북에서 활동하는 50명의 작가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한 서예, 회화, 판화, 입체(조소·설치), 만장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새가 울다
김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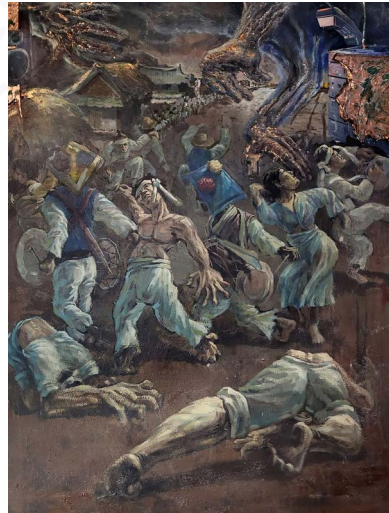
무인도
김두해



호박
임동식



울림1894
이기홍



동도
이택구



오직, 평화
심홍재



온고지신-밥
강용면



동학언니
정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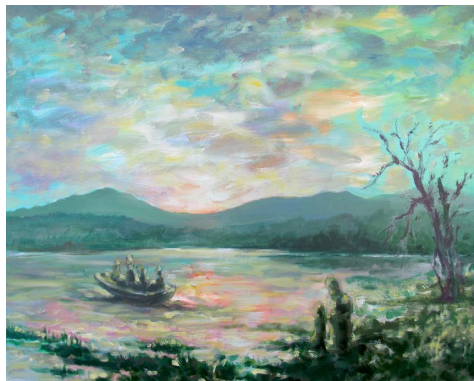
역사는 흐른다
문리



삶과 죽음
김정아



갑오년
김용련



출정
진창윤

동학농민혁명 소리극 시즌3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11월 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8일 고창문화의전당, 2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소리극 시즌3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기획·제작하고 고창문화의전당과 부안예술회관이 공동주관한 이번 공연은 갑오년 당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과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공연은 '1894년 갑오년으로부터 오늘, 오늘로부터 1894년 갑오년까지'의 역사를 태권도, 농악,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형상화한 무대공연 작품이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금강, 그 빛나는 눈동자' 공연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제180회 정기공연으로 '금강, 그 빛나는 눈동자'(국악칸타타)라는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대전시에서 주최하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시문학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신동엽의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금강」을 국악관현악과 성악으로 창작한 국악칸타타 무대공연 작품이다. 조선 말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몸부림쳤던 백성들의 삶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 농악 장단을 작곡의 핵심 모티브로 삼아 작곡하였다. 이로써 역동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주로 공연 내내 관객들을 오감을 사로잡았다. 이번 공연을 연출한 관계자는 신동엽 시인의 대서사시 「금강」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물론이고 시어(詩語)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울림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농민군의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반전평화로 꽃피우려는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신동엽 시인 대서사시 「금강」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되어 1967년 발표된 장편서사시이다.



□ 사진출처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8차 이사회



2021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4기 제8차 이사회가 열렸다.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규정개정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1년 주요업무추진 현황, 자문위원회의 결과 등에 대한 보고안건도 원안대로 접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하여 곽병창(우석대 교수), 김양식(청주대 교수,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김봉기(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함기영(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진동기(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4차 자문위원회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4기 제4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비롯하여 기념재단 4기 8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와 함께 2022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식과 기념공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용선(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명성(前 KBS전주방송 보도국장), 전성진(前 MBC전주방송 사장), 최순삼(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상임감사), 백승중(경희대 교수), 진동기(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위원회 개최



2021년 10월 7일(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조사위원 김양식(청주대 교수)·김희태(前 전라남도 전문위원)·배항섭(성균관대 교수)·이동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이상억(前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을 신청한 21건(참여자 21명, 유족 181명)을 사전 심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11월 2일(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오송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심의위원 구선희(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김춘성(천도교 도서관위원장)·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이진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강완구(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최병관(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남일(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을 신청한 21건 중 보류 2건을 제외한 19건을 심의하여 참여자 5명, 유족 58명을 인정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 및 추모공간 자문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8일 동학농민기념재단 교육관 내 회의실에서 기념공원 내 신설되는 전시관과 추모관 구성의 기본계획 및 세부연출 협의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이동언(前 독립기념관 연구소 연구위원), 정해곤(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처장), 박재상(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사), 안재홍(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고주원(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백현민(문체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념공원 서남쪽의 전시관에 동학농민혁명을 네 가지 관점으로 보여주는 전시기획안, 추모관 벽면에 참여자 명패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중앙에 무명농민군의 넋을 기리기 위한 헌화(인터랙티브 조형물) 등으로 연출하며, 야외 추모공간은 스틸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대나무가 차츰 단단해지는 시설물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 굳 세게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설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대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추모관 전시 설명회



지난 10월 8일 동학농민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기념공원 내 신설되는 추모관 구성에 따른 전시·제작 관련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회장을 비롯하여 정해곤(충남 아산), 함기영(경기 남양주), 송영례(경기 광주), 최기주(전북 임실), 박종호(전북 전주), 심재식(전북 정읍) 등 유족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추모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공사현장 방문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현장의정활동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장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현장(정읍)

지난 11월 16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이정린)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위원, 김명지 위원, 조동용 위원, 오희근 위원 등이 참석하여 올해 말 완공된 후 시험가동을 거쳐 2022년 5월 11일 개관예정인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전기향의 고손자 전장홍

일 시 2021. 11. 17.(수) 12시

장 소 (사)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문병학 이번 호 『녹두꽃』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전기향(全基恒, 1827~1900)님의 고손자 전장홍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장홍 이 머나먼 예천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894년 갑오년 당시 예천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셨던 전 기자 향자 님의 고손자입니다. 지금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선생님께서는 현재 (사)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외에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갑오년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근래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장홍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에 창립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 참여하여 전국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96년에는 예천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 예천동학

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집강소에서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했던 장소에 위령비를 세우는 등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유림세력이 강했던 지역이다보니 갑오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2019년 국가기념일까지 제정되어 우리 경북지역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다시 한 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현재는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법인화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하는 인터뷰 내용이 실린 『녹두꽃』 책자가 발행될 때쯤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사단법인 인가가 난 상태일 것 같습니다.



문병학 네, 회장님. 유족인터뷰이니까 고조부이신 참여자 전기항 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고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는지요?

전장홍 사실 집안에서도 명확하게 기록이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고조부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고조부님께서는 풍채가 위낙에 좋고, 일 추진력이 대단하셔서 돼지의 한자 표기인 전도야지(刀也只)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고조부님께서는 당시 천석꾼으로 불릴 정도로 부농이었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끌어다 쓴 바람에 살림이 꼬그라들어버렸고, 혁명이 실패로 끝난 이후 가게는 풍비박산이 나서 할머니가 처음 시집왔을 때 “식량은 하나도 없고, 살림살이라고는 달랑 무쇠술 하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문병학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이화 선생님께서 한겨레신문에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을 1993년부터 1994년 100주년 때까지 시리즈로 연재하셨잖아요? 그 무렵에 고조부님의 활동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이화 선생님과 자주 만나셨지요?

전장홍 네, 그랬지요. 제가 예천농협에 전무로 근무할 때 이이화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 고조부님께서 예천지역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셨다면 저와 함께 고조부님 산소도 가보고, 예천군청도 방문하여 이런 저런 증명서도 떼어보고, 옛 군지(郡誌) 등도 살펴보고 그랬었지요. 이이화 선생님께 저희 고조부님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선생님, 예전부터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고조부님의 공적을 기리는 추모비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고조부님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이화 선생님께서 추모비의 비문(碑文)을 써주시는 등 아주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1996년에 저희 고조부님 묘 옆에 ‘전기항의사추모비’를 세울 수 있었답니다.

문병학 네, 회장님.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정부에서 청나라 파병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조선으로 군대를 들여보내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치정세가 요동쳤겠습니까? 그래서 구국의 결단으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비워주고 나왔고, 조선정부가 파병을 요청한 원인이 해결되었다면서 청·일 양국에 철병 요구하였으나 철병은 커녕 일본군이 6월 21일 경복궁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종을 인질로 잡고, 친일내각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원군을 옹립하는 등 국권을 농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동학농민군이 척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시 봉기하였습니다. 이때 경상도 북부지역인 예천지역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하였는데, 고조부님께서 모량도감(募糧都監) 또는 운량도감(運糧都監)이라는 직책을 맡아 예천, 용문, 구미, 해평, 상주 일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량도감 또는 운량도감은 군수물자를 모집·운송하는 책임자인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홍 당시에 고조부님의 활동이 베일에 쌓여있어서 저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증조부님과 조부님도 고조부님이 모량도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는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농촌 또는 촌락이 씨족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천지역은 함양박씨, 예천윤씨 세력이 컸는데 특히, 용문면이 함양박씨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고조부님께서 그분들과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용문에 있는 함양박씨 세력권인 ‘금당실과 송림(松林)’을 훈련장 또는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병학 예천지역에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갑오척사록』에 “당시 관군에 속한 민보군이 예천 금당실에서 붙잡아온 농민군을 취조하여 금당실의 우두머리가 모량도감인 전도야지인 것을 알아내었다.”고 전하고 있지요? 갑오년 당시 고조부님께서 용문뿐 아니라, 최맹순 수접주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홍 최맹순 집주가 활동한 소야리가 지금은 문경 산북면이지만 그 당시에는 예천에 속할 정도로 문경 시와 예천군은 서로 가깝습니다. 용문의 금당실에서 소야리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꽃재마을을 거쳐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두천과 금곡을 거쳐 가는 길입니다. 고조부님께서 피신하시면서 소야 최맹순 수접주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움직이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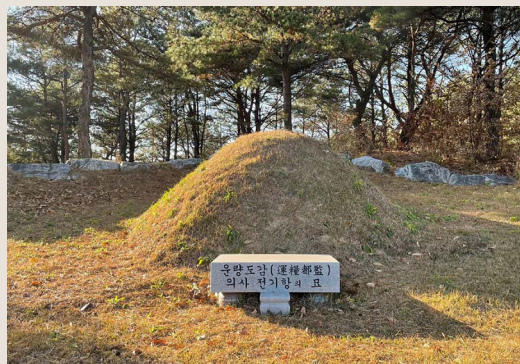
문병학 고조부님께서 예천 용문, 상주, 문경 등지에서 반일항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으나 당시 경상도 북부지역은 농민군 세력보다 유림세력이 강해서 민보군의 세력이 더 컸습니다. 예천지역 동학농민군이 민보군에게 패한 후 고조부님께서 산으로 들어가 여러 곳에 농막을 짓고, 오랫동안 피신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에는 소식이 끊겨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전해들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홍 일본군과 민보군에 의해 농민군이 패배하였으나 고조부님은 체포되지 않고 소백산자락 깊은 산골인 문경 동로면, 삼북면, 유천면, 용문면 등 여러 곳에 농막을 짓고 숨어 지내셨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그랬고, 패배한 후 피신하실 때에도 고조부님은 신출귀몰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잡히지 않고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소백산자락 산골마을을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지원과 성원을 받아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렵 집안에서도 고조부님이 어디서 기거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병학 네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윗대 어른들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서 숨죽이며 살아오

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고조부님께서 모량도감 직책을 맡을 당시 재산을 다 농민군 활동에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이후 증조부님과 조부님의 삶이 아주 곤란했을 거 같은데...

전장홍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관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을 잡아낸다고 수시로 집안을 들쭉서서 약탈 해가는 바람에 저희 증조부님이나 조부님 때 살길이 막막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시집을 온지 얼마 안 되어 지금의 문경시 동로면 석항 1리로 거주를 옮겨 그곳에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석항 1리는 예전에 화전민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는데, 아버지와 저도 거기서 출생했어요. 하도 어릴 때라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먹을 것이 감자나 수수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 빵아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 살다가 지금의 예천으로 왔습니다.



문병학 앞서 잠깐 얘기되었는데, 1996년 고조부님 묘소에 추모비를 세우셨잖아요? 추모비 건립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홍 이이화 선생님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있어서 단연 최고이지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고조부님 추모비 비문을 써주실 수 없으신지 여쭙더니 기꺼이 수락해주셨어요. 비문에는 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천지역에서도 반일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었다는 점과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여 민보군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윤치문의 활동과 고조부님의 활동이 짧지만 집약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처음에 추모비를 송림 일본인 신사 터에 세우려고 예천기념사업회에서 노력했었습니다. 일본인들 신사 위에 반일투쟁을 하셨던 고조부님의 추모비를 세우는 게 아주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사 터가 예천군유지예요. 그래서 예천군청에 허가신청을 냈는데, 군청에서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니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동네 어르신들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 했던 후손들이 너도 나도 그곳에 비를 세우려고 할 텐데 그러면 끝도 없다.”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으셔서 신사 터에 추모비를 세우는 것이 무산되었어

요. 사실 어르신들 말씀은 그러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아직도 마음속으로 흔쾌히 수용되지 않아서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모비를 100주년이던 1994년에 만들어놓고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2년 뒤인 1996년 고조부님 묘소 앞에 세웠었습니다. 벌써 추모비를 세운지 26년 정도 되었네요. 예천기념사업회에서 처음에 계획하여 추진했던 것처럼 다시 논의를 거쳐 송림 신사 터로 추모비를 이전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이후 예천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을 준비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렴풋 합니다만 1996년 3월 초 예천성당에서 고이이화 선생님 역사특강과 기념사업회 창립식을 함께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창립이후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셨었는데...

전장홍 사실 예천지역의 한천제방과 서정자들에서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측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주된 이유는 8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새벽녘에 예천 보수집강소의 민보군들이 동학농민군 11명을 잡아 내성천변 모래밭에 산채로 묻어버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짐승도 생매장을 안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생매장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천기념사업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비석을 세우자고 창립되던 그해 가을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예천읍 제방 쪽에 세우려고 했지만, 그곳에다가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제2의 장소를 물색한 끝에 지금의 장소에 세우게 되었지요.

문병학 네,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예천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특성으로는 아무래도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한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갑오년 당시 전라도와 충청도지역은 몇몇 곳만 빼놓고 대체로 동학농민군 집강소가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북부지역은 반대로 유림세력을 중심으로 보수집강소가 강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곳 예천지역에서 농민군을 보수집강소 세력들이 생매장한 사건이 생겨났는데, 이점을 생명존중, 화합과 상생 뭐 이런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게 재해석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이 있는 기념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장홍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매장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 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엄연히 갑오년에 우리 예천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념대립, 노선대립 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곡절을 겪고 있는데 이념이나 노선 이런 것보다도 어쨌거나 선참에 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천지역에서 벌어진 농민군 생매장 사건을 현재적으로 해석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의 역사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재조명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고 이해시켜 서로 도와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갑오년 당시에는 서로 적대관계

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대회 때 예천향교 관계자분들도 일부러 초청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도 동학농민혁명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앞으로도 지금의 상황에 맞게 현재적으로 정신을 선양해나가는 일을 그분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문병학 2021년 11월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가 모두 34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993년 12월 13일 결성했던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때 11개 단체가 활동했던 것에 비하면 꼭 3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무엇보다도 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전후해서는 1차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기념사업단체가 활동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차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된 지역에서 단체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체창립과 그 활동폭이 변화한 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역사인식의 대중적인 전환을 추구하였고, 그 결실로 2004년 특별법 제정과 2019년 기념일 제정을 견인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갑오년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인 의미와 그 위상을 복원하는 방향에서 기념사업이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법인화를 통해 경북지역의 동학농민혁사를 복원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보다 더 큰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천명은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전장홍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 근·현대사의 극심한 굴절 속에서 사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사건으로 치부된 경향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군사정권 때 이루어진 기념사업이 전라북도 정읍과 충청도 공주 우금치 등에만 집중되어 왜곡되고 축소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고착화시킨 측



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1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그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뒤집게 되어 특별법과 기념일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때문에 남은 과제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펼쳐진 전국 각 지역의 관련 유적지를 찾아 정비하는 한편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기념사업을 펼침으로서 명실상부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한 우리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임원과 회원 모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인 의미와 위상을 되찾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사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념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념재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문병학 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고, 장시간 시종일관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권기항의사 추모비

—비문(碑文)—

때는 바야흐로 나라 밖에서는 열강의 마가 뻗어 오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서는 부패가 만연하고 폭압이 자행되고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백성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에 떨었도다. 백성은 하늘이라 했거늘, 짓밟고 못살게 구는 자 누구였던가? 이런 시절에 한 의사가 침략의 마수를 꺾고 부패와 폭압을 막으려 분연히 일어났으니 그 이름 청사에 빛나도다.

의사의 드높은 이름은 기항(基恒)이다. 의사는 용궁전씨(龍宮全氏)로 용성부원군 방숙의 후손이며 아버지 익렬과 어머니 손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1827(순조 27년)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에서 태어나셨도다. 의사는 학문과 효우(孝友)로 명성이 높았던 집안의 전통을 몸체 지켰으며 살림이 넉넉한 속에 남에게 베풀 줄 아는 후덕한 이로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도량이 넓고 용의가 출중하여 지도자의 품격을 지니고 있어서 전도야지(全刀也只)라는 애칭이 붙었다.

동학이 인시천(人是天)의 사상을 내걸고 사람이 하늘이라고 외치자, 하늘과 같은 사람들이 산길을 찾아 모여 들었다. 예천에도 금당실 맞질 화지 등지에 동학 접소(接所)가 생겨 벼슬아치와 토호의 부정과 무도를 징치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의사는 일찍이 금당실 일대의 동학 지도자가 되었다. 1894년 봄 전봉준이 처음 전라도 땅에서 반봉건(半封建) 반외세(反外勢)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의 횃불을 들자 전국으로 요원의 불처럼 번져나갔다.

예천 땅에서도 이 해 음력 8월 일대 봉기를 결행했도다. 의사는 금당실 지역에서 운량도감(運糧都監)의 소임을 맡아 군량미 책임을 졌도다. 68세의 나이인데도 그의 의기는 죽지 않았으니 장하도다. 의기로만 뭉쳐진 수천 명의 예천동학농민군은 수점주 최맹순과 군사 지도자 윤치문의 지도 아래 일본의 침략 마수를 꺾기 위해 옷깃을 떨치고 일제히 일어섰다. 이른바 농민군을 토벌하려고 만든 집강소의 민보군(民堡軍)과 한 내에서 큰 싸움을 벌였지만 무기의 열세로 인해 절절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하나 이는 상주와 함께 경상북도 일대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했던 전투였다. 관군과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을 잡는 대로 효수와 생매장을 해댔다. 아아, 무슨 원혐(怨嫌)이 있길래 외적을 앞에 두고 동족끼리 이런 잔혹한 짓거리를 했던가?

의사는 몸을 빼서 깊은 산속이나 농막을 전전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았다. 끝내 1900년 나라가 더욱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 한많은 목숨을 거두었도다. 손부 나정주씨는 의사와 자손이 겪은 고초를 보고 들은 대로 생생히 전해 주는구나. 임들은 한을 남겼으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임들의 구국 정신을 민주와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고 역사와 교훈으로 받들고 있도다.

아들 영진·세진, 손자 일호, 증손 상훈·상은, 현손 장흥·희집·희도·희영·희삼을 두었고, 장흥은 아들 재현·재국·재구, 희집은 아들 재호·재철, 희도는 아들 재민, 희삼은 아들 재진을 두었다. 번성할진저. 의사의 구국 일념을 기려서 그 행적을 여기에 적어 후대에 전하노라.

동학농민전쟁 백주년이 지난 두 번째 해에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이이화 글 짓고,
민족문화 소절가 박치대 글씨 썼으며,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세우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서

일 시 2021. 11. 25.(목) 13시

장 소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병학 이번 호 『녹두꽃』 지역대담 인터뷰에는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영식 명예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영식 네, 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겸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선생님 선조님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증조부님과 증조부님의 아들 2대가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지요? 참여하신 분들의 내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증조부이신 문 장자 로자 직계가족만 말씀드리자면, 증조부께서는 1894년 태안동학농민혁명 기포의 주역으로 태안성, 승전곡(면천), 관작리(예산), 홍주성 전투 등 내포지역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조부님의 큰아들 문 구자 석자, 그러니까 저의 큰 조부께서도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태안, 승전곡, 관작리, 홍주성 전투 참가하셨는데, 동학농민군이 홍주성에서 크게 패배한 후 증조부님께서 방갈리로 피신하였을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스스로 붙잡히셔서 총살을 당했어요. 또 제 큰 조모님 그러니까 문구석 큰 조부님의 부인이신 최 장자 수자님께서는 당신의 남편인 문구석 조부님의 시체를 태안에서 원북 방갈리까지 60리길을 지고 와서 숨겼다가 나중에 장사를 지내는가 하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심으로 모신 효부로 종친회로부터 포양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로 님의 둘째아들, 그러니까 문구석 님의 동생 문병석 님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린아이였으나 이후 천도교에 입도하여 교세확장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신선양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앞장서 무수한 박해와 고문으로 평생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문병학 그러니까 선생님의 증조부이신 문장로 님과 그분의 아들 두 분이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치셨네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문장로 님의 손자이자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문원덕 어른께서도 백화산 교장바위 아래 추모탑을 세우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헌신하셨으니까 선생님이 4대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이어오고 계시는군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거나 증조부님과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까닭에 선생님 가계에 관련 유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물들을 선생님께서 기증과 기탁을 해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었지요?

문영식 순국선열들께서 가신지 130년에 가까워지는 오늘까지 선열께서 남기신 귀중한 유물들은 후손들이 살기 위해 숨기거나 불태우고, 땅에 묻어버리는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5대를 지나온 지금 남아 있는 유물이 많지 않지요. 천만다행으로 우리 가계에 내려오는 유물들이 있어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느라 노심초사했던 저의 어깨도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문병학 기증하신 유물들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요.

문영식 저희 집안에 내려온 유물은 모두 315건에 606점으로 이번에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기증한 유물은 146건에 226점이고, 기탁한 유물은 169건에 380점입니다. 그동안 제가 관리해온 유물들은 크게 관련 기록물과 민속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로 구분되는 유물은 264건에 534



점이고, 민속자료는 구분되는 유물은 51건에 72점입니다. 이 유물들은 형태에 따라 기록물은 낱장류·전적류·가철류, 민속자료는 인장류·민속류·종교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록물 낱장류는 임명장·증서·명단·위령문 등이고, 기록물 전적류는 동학경전(동경대전·용담유사), 기록물 가철류는 순도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민속자료인 인장류는 추모단체 관인·직인·인장 등이고, 민속류는 안경·은장도·문방구·식기류, 종교류는 동학혁명선양기(旗)·천도교복식 등입니다.

문병학

선생님 가게를 빼놓고서 충청도 내포지역 특히 태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와 정신선양사업의 역사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선대로부터 시작된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영식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일어난 반봉건 민주화운동이자 반외세(반일) 민족항쟁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갑오년 당해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줄기차게 이어졌고, 1945년 광복될 때까지 치열한 투쟁을 지속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혹독한 탄압으로 생존의 극한상황까지 내몰리며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될 때 가장 기쁜 사람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어야 했고, 그 후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반대로 흘렀습니다. 봄은 왔으나 봄이 봄 같지 않았다고나 할까? 왜 그랬을까? 우리를 강점한 일본은 물러갔으나 그 자리에 친일세력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반란군이자 역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오년 이후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현장도 방치된 채 버려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여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은 설 자리가 없었

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잃어버린 70년(1894~1965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역사학계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주리를 뜯은 식민사학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후손들도 잊어버린 70년을 떨치고 추모와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픔을 박차고 제 아버지이신 문원덕 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1세대 동학농민혁명 선양운동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은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갑오동학혁명 순국순도자명부』가 1965년 완성되었으니까 명부 작성을 시작한 것은 1962~3년경이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을 결속시키면서 동학농민혁명군 추모탑 건립을 구상하고, 1970년 초에는 ‘추모탑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참으로 어려웠던 때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읍 황토현에 세워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나 공주 우금터 고개마루에 세워진 동학혁명군위령탑은 당시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안의 경우는 보리고개 시절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에게 곡식을 모아서 건립해야 했기에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모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77년에 대외적으로 추모탑 건립계획을 공개하면서 ‘동학농민혁명군추모탑건립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건립위원회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1978년 10월 2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1세대 선양운동으로 작성된 순국순도자명부는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밟는 중이고, 1978년에 건립한 추모탑은 세월에 노후화하여 쓰러질 것 같아서 2000년대로 들어선 후 술한 어려움을 딛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모탑과 주변을 환경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모탑에는 동학지도자 피체자비, 동학전래비, 유공자비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어 태안지역은 물론이고 내포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동분서주하셔서 어렵게 세운 추모탑을 참배할 때마다 탑신에 새겨 넣은 순국선열 추모시를 암송하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甲午東學軍 갑오년의 동학군이며 / 蜂起革命軍 벌떼처럼 일어난 혁명군이며 / 安民除暴吏 벼슬아치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고 / 救國舉義軍 나라를 구하고자 정의를 들고일어난 의군이며 / 徒手號天曰 빈손으로 하늘을 부르며 / 窮途散花軍 기꺼이 나아가 산화하신 혁명군이며 / 嗚呼慰靈塔 슬프도다 위령탑이며 / 英勇無雙軍 용맹무쌍한 혁명군이며”

문병학

“빈손으로 하늘을 부르며 / 기꺼이 나아가 산화하신 혁명군이며”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보니.... 가슴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붙어잡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전후에는 백화산자락 교장바위 아래 추모탑의 탑신이 너무나 낡아서 무너질까 염려스러웠는데, 2000년대로 넘어와 선생님께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탑신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정비하고, 새로운 비들도 세워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추모탑과 주변을 환경정비한 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원암 문원덕 선생은 어렵게 추모탑을 세웠지만,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1978년 추

모탑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86년에 추모탑을 완벽하게 정비하지 못하신 한을 안으시고 끝내 환원하셨습니다. 추모탑을 건립하시려고 노심초사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본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낡고 초라하기까지 했던 추모탑이 장마와 태풍이 오면 곧 스러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전국에서 펼쳐져 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태안지역의 역사인식은 차가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낡은 추모탑이 무너질까 염려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 십 수년 계속되자 마음을 굳게 먹고 2001년 용기백배해서 태안군청으로 찾아가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뵙고 건의하고 또 건의한 끝에 1차로 25백만 원을 지원받아 추모탑 보강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차로 25백만 원을 지원받아 추모탑 주변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제가 ‘잘거머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위해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좋은 뜻으로 그냥 스스로 해석하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추모탑 보강공사와 주변정비를 한 후에 청수를 모시고 하늘에 신고식을 가졌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내려간 뒤 나홀로 남아 추모탑 앞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추모탑 보강공사와 주변 환경을 정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때마다 하늘에 계신 선열님들과 아버지께 제게 힘을 주시라고 참 많이 기원하였습니다. 저 혼자 참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문병학

네, 선생님. 추모탑을 건립한 후에 지금까지 매년 10월 말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 때 내포지역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위무하는 추모제를 모셔왔지요? 맨 처음 추모제를 모신 것은 언제였는지요?

문영식 아버지께서는 추모탑을 건립한 해부터 매년 추모제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환원하시자 누구도 추모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추모탑을 미완성 상태로나마 준공한 후 원북 방갈리 동학농민군 기포지에 비(碑)를 세우시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아버지 병 수발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환원하시고 나서 저는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환원하신 후로 지금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모제례를 모셨습니다. 지금이야 내놓고 제례를 올리지만 그때만 해도 남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의 눈을 피해 이른 새벽에 추모탑에 올라가서 청수를 올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어린 딸과 아들을 앞세우고 올라가서 청수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혹시 점쟁이 아닌가?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기도 하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할 때면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추모탑에 올라 청수를 올리곤 합니다.

문병학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마음이 제게로 전해져서 제 가슴이 돌덩이를 엮은 듯 묵근해지네요. 매년 추모제를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하여 태안지역에서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해오셨는데,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지금은 잘 알려진 것처럼 1894년 동학농민군이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일본군과 관군 등에 패배한 후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전라도 사건으로 그리고 반란사건으로 철저히 축소되고 왜곡된 채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100주년 기념사업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펼쳐지면서 그 의미와 역사적 위상이 바로 세워지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2004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기까

지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전까지만 해도 태안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의 일이라거나 공주에서 패배한 사건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100주년 이후에도 꾸준히 태안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나 유적지답사 등을 추진해왔어요. 근년에 들어와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알리는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안군 소재 초·중·고 선생님들과 연대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해서 태안지역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뜻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우리 태안군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충남도교육청,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병학

지난 10월 22일 태안군 태안을 백화산자락 교장바위 아래, 태안초등학교 뒤편에 부지 총 5,213㎡ 연전평 1,386㎡으로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기념시설물 특히나 기념관이나 전시관 등은 주로 전라도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태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념관이 개관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 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제 아버지이신 원암 문원덕 선생님께서 평생 고뇌하시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분이 환원하신 후 제게는 그분의 모든 흔적이 너무나 소중하였습니다. 지금도 귤전에 생생한데 언젠가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못마땅하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나를 이해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아버지의 유훈을 받드는 것을 나의 숙명으로 여기고 저도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기여키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모탑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하려고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군수님께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편지로 구구절절하게 올렸습니다. 그 결과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 중앙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선열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2017년에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건립부지 확보를 비롯해서 기념관 규모와 사업비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올해 드디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문병학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지요? 이곳 태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영식

지난 7월부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여 실질적인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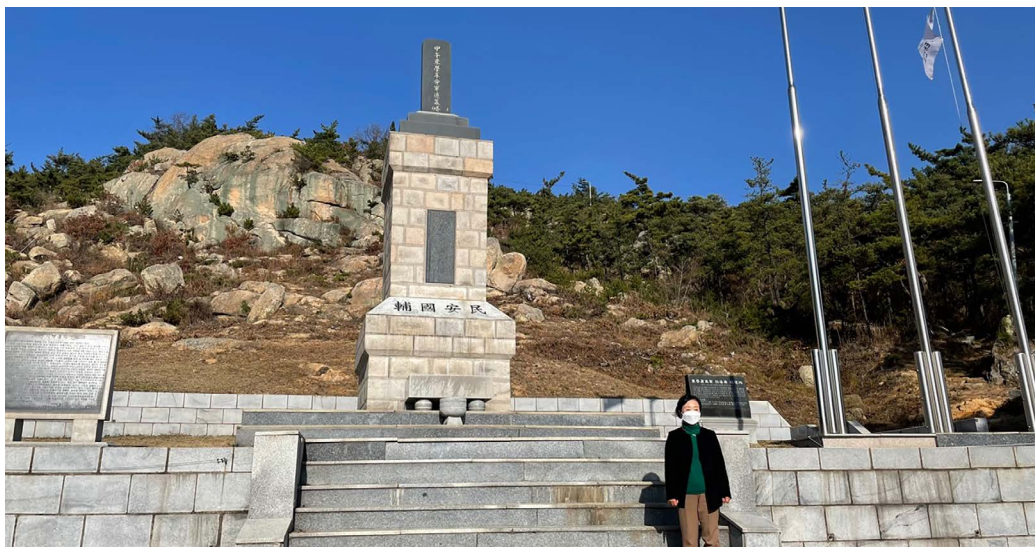
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광장 등에서 3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의 반응은 없습니다.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탐관오리의 폭정을 제거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음력)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임금을 인질로 잡고 친일내각수립, 청일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전국 각 지역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를 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규정 범위에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하지 않는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토벌대 출신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면서 일본군과 싸운 동학농민군은 서훈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말이 됩니까?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문병학

기념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장바위 아래 추모탑과 기념관을 연계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사업계획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먼저,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념관을 활기 있게 운영하는 것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되도록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충남도교육청 등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연대협력하여 태안지역 나아가 내포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알려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성을 전제로 한 상생의 화해 없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서훈도 동학농민혁





명기념관의 건립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님은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온다고 하지 말고 한울님이 온다고 하라.”고 하셨으며,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섬기고 또 섬겨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님은 약자에 대한 섬김이 특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약한 이는 여성과 어린이였는데, 1894년 말 청주에 있는 한 제자의 집에 들렀을 때 방 안에서 베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에게 “누가 베를 짜는가?” 물으니 제자가 답하길 “제 아내입니다.”라고 답을 하니 해월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한울님이 짜고 있느니.”라고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신분과 남녀노소를 모두 평등으로 대하는 정신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네, 선생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한 생애를 바쳐온 선생님과 또 선생님의 선친 문원덕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조부님과 증조부님의 삶에 대해 듣게 되어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예천군
(사)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대회



2021년 10월 4일 예천청소년수련관 대회의장에서 (사)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1996년 3월 창립되어 활동해왔던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으로 재정비하고자 마련된 이번 창립대회에는 김학동(예천군수), 김은수(예천군의회 의장), 강윤구(예천군의회 부의장), 한중섭(예천향교), 도기욱(경북도의회 부의장), 안희영(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김봉기(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 김규택(예천약포정탁기념사업회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새로 출범한 (사)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초대 임원진으로 이사장 전장홍, 이사 김두년·류진상·문제갑·송난수·안도현·한해수·황화섭, 감사 김정모·장성균 등이 선임되었다.

충북 청주시
동학농민혁명기념
제2회 충북깃발문화제



2021년 10월 16일 충북 청주시 무심천 꽃다리 장승
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을 기념하여 제2회
동학농민혁명 기발문화제가 열렸다. 충북동학농민혁
명기념사업회(회장 김양식)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
는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장승 세우기, 진혼 춤, 시
낭송에 이어 민요와 인권노래, 한글 검 공연이 이어
졌다. 이 행사에는 이용길(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회장), 조한필(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박연정(논산동
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청주시민들은 물
론이고 전국의 기념사업 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
하였다.

충남 태안군

제31회 동학농민혁명군추모문화제



2021년 10월 29일 백화산추모탑 광장에서 제31회 동학농민혁명군추모문화제가 태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용주),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문영식) 공동주최로 열렸다. 추모제는 위령문 낭독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추모사, 유족인사, 헌시 낭송, 문화예술공연, 동학농민혁명 주제 백일장 수상자 시상식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회장을 비롯하여 가세로(태안군수), 김지철(충남교육감),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송범두(천도교중앙총부교령), 정낙추(태안문화원장), 박용규(동학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 등과 많은 태안군민들이 참여하여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충남 공주시

제28회 우금티 추모예술제



2021년 10월 30일 공주우금티전적지에서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신경미) 주최로 제28회 우금티 추모예술제가 열렸다. 금강물풍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김정섭(공주시장), 장명진(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백선기(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추모제례를 모신 후 문화예술공연으로 해봄 가야금연주단의 연주와 나빌레라 우리춤 공연, 뮤지컬 '우금티에서 피어난 꽃'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유튜브(채널 : gongju흥미진진 공주시)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충남 아산시 2021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2021년 11월 5일 (사)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장명진) 주최로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2021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가 열렸다. 이 용길(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김향로(당진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 이사), 황대규(아산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문영식(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박용규(동학서훈국민연대 상임이사), 박성묵(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예산역사연구소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온양온천역 광장역에서 동학농민혁명 홍보 주간 선포식을 가진 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태영 접주 묘역으로 자리를 옮겨 아산지역 동학농민군 위령제를 지냈다.

전북 정읍시

순국 127주년 김개남 장군 추모제



2021년 11월 6일 김개남 장군 묘역(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669-1)에서 김개남과상두산회(회장 김호영),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동학농민혁명정읍시유족회(회장 심재식) 세 단체 공동주최로 추모제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보국안민 고귀한 님, 지금도 우리 곁에'라는 주제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풍물패와 함께 김개남 장군이 살았던 마을을 답사한 후 추모제례로 이어졌다. 추모제는 개회사, 추모사, 고천문 낭독, 추모제례, 참가자 분향 및 재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인 올해 추모제에는 김개남 장군 고손자 김호영을 비롯하여 유진섭(정읍시장), 윤준병(국회의원), 이상길·정상섭·기시재·이익규(정읍시의회 의원), 박맹수(원광대 총장), 안경엽(남원기념사업회장), 김용선(고창유족회장)등이 참석하였다.

경남 산청군
제127주년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위령식



2021년 11월 11일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고성산동학혁명위령탑에서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대표 김희수)가 주최하고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기념사업회(대표 하재호)의 주관으로 제127주년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식이 거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12개조 폐정개혁안 낭독, 추념사 및 추모사, 동학혁명군 추모가 합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하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문찬인(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의 강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결의도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하동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박인준(천도교 종무원장), 정의맹(연원회의장), 박창수(감사원장), 장구갑(사회문화관장), 하재호(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허식(하동군 옥정면장), 김성채(하동군 문화체육과 주무관), 장호봉(하동군 옥종면 농민회장), 하승철(전 부산진해 자유구역 경제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전북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전 희생자 추모제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김정호)는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과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에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희생자 추모제례를 거행하였다. 전라도 완주군 삼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점령한 후 친일내각을 수립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자 반일항전의 기치를 들고 다시 봉기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한편, 완주군 대둔산 형제바위는 1894년 겨울 공주 우금티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 20여 명이 완주군 대둔산으로 숨어들어 이듬해 2월까지 형제바위에 몸을 숨긴 채 항전하다가 전원 전사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경북 상주시

상주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위령제 및 제8회 동학문화제



2021년 12월 3일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김봉기) 주최로 상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27주년 상주동학농민혁명 위령제 및 제8회 동학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솟대 만들기 및 판화찍기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식전행사에 이어진 추모제례는 위령무, 제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령제에 이어 선반사물놀이, 클래식타 공연, 합창단 등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상주시민들을 비롯하여 정용운(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지역 위원장), 김영선(경북도의원), 임부기(상주시의회 부의장), 정길수·신순화(상주시의원), 조원희(前더불어민주당 전국 농민위원회 부회장), 박찬선(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초대회장), 전장홍(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오영일(민족예술총연합상주지회장), 유희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주지회장), 오덕훈(前 환경학교장) 등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전북 부안군

2021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Glocalization) : 동학 문화 콘텐츠 개발



지난 2021년 12월 3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동학학회 주관으로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 동학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2021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열렸다. 개회식은 동학학회 임형진 회장의 개회사, 부안군 김종택 부군수의 환영사, 천도교중앙총부 송범두 교령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이어진 학술대회는 「부안 동학 문화콘텐츠 활용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윤석산(한양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의 연구동향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우수영, 경북대), 「동학농민혁명의 음악 양상과 문화 콘텐츠로서의 잠재성」(김정희, 한예중), 「동학과 민중미술의 만남」(김종길, 경기문화재단), 「동학(농민)혁명과 문화 콘텐츠, 그리고 한류 : 동영상(Moving Images)을 중심으로」(전찬일,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부안 동학농민혁명 문화콘텐츠 방안연구」(박대길,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녹두꽃, 다시 피다

■전북도교육청, 지원 답사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연대하여 매년 중·고교생 대상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가을에도 전국의 27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하였다.

군산시 군산고등학교(2021.09.11.)



익산시 이리여자고등학교(2021.09.11.)



남원시 산내중학교(2021.09.24.)



부안군 부안중학교(2021.09.25.)



익산시 함열초등학교(2021.10.07.)



순창군 제일고등학교(2021.10.09.)



고창군 성내중학교(2021.10.12.)



익산시 익산고등학교(2021.10.13.)



김제시 중앙중학교(2021.10.15.)



정읍시 고부중학교(2021.10.15.)



전주시 서신중학교(2021.10.16.)



군산시 오봉초등학교(2021.10.21.)



남양주시 아람초등학교(2021.10.23.)



고창군 신림중학교(2021.10.26.)



전주시 한일고등학교(2021.10.27.)



김제시 만경중학교(2021.10.29.)



남원시 남원고등학교(2021.10.30.)



익산시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2021.10.30.)



전주시 신흥고등학교(2021.10.30.)



전주시 생명과학고등학교(2021.11.03.)



군산시 제일고등학교(2021.11.06.)



익산시 원광여자중학교(2021.11.06.)



남양주시 동부광성 사사학교(2021.11.10.)



전주시 전북여자고등학교(2021.11.13.)



꿈을 품은 박물관
아산시 한울중학교(2021.10.01.)



꿈을 품은 박물관
부안군 변산중학교(2021.10.12.)



꿈을 품은 박물관
광주광역시 문산중학교(2021.10.22.)



꿈을 품은 박물관
정읍시 정우중학교(2021.10.27.)



파랑새를 찾아서
김제시다문화센터(2021.10.02.)



파랑새를 찾아서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2021.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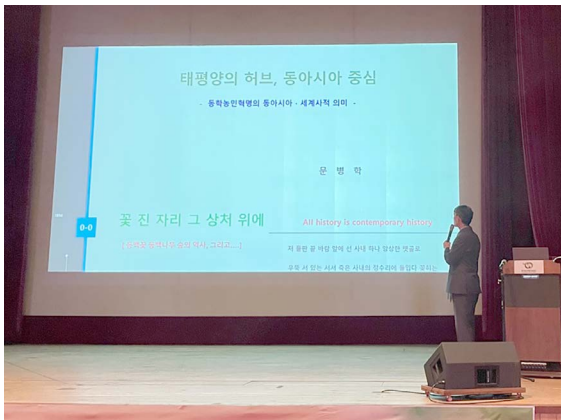
파랑새를 찾아서
김제시다문화센터(2021.11.20.)



■ 전남도교육청, 역사교사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유치부 및 초·중·등학교 역사교사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데 기여하고자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역사교육 역량강화 역사답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11월 19~20일과 11월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특강과 유적지 답사 등으로 각각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1기 직무연수(2021.11.19.~20.)



2기 직무연수(2021.11.26.~27.)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9월 13일	위키투리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사회단체, 동학농민운동 무명열사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활동 실시
9월 14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완결은 독립유공자 서훈이다
9월 14일	지이코노미	정읍시, 친일 작가 논란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 '역사 속으로'
9월 18일	파이낸셜뉴스	[역사줌인] 아래로부터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다 '동학농민혁명'
9월 19일	이투데이	[신간] 동학농민혁명, 얼마나 알고 있나
9월 23일	전북도민일보	전북민예총, 제 18회 전북민족예술제 개최... '척왜! 척왜!!! 정유년의 함성, 갑오년의 함성'
9월 26일	전북도민일보	고창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모금 전국서 2억 6천만원 답지
9월 26일	전북일보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을 위한 기부금 기탁 이어져
10월 5일	지이코노미	정읍시 덕천면 이장협의회,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모금 '앞장'
10월 5일	새전북신문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촉구
10월 6일	굿모닝충청	"한국 민주주의 뿌리는 불의에 맞선 동학혁명"
10월 7일	굿모닝충청	태안 '승언리 상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보관키로
10월 11일	Breaknews	채길순 작가 "새로 쓰는 동학기행" 2권 출간
10월 16일	굿모닝충청	동학혁명군이 꿈꾸었던 보국안민의 깃발, 청주서 펴력이다
10월 17일	전북일보	정읍 산내면 이장협의회,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성금 100만원 기탁
10월 18일	새전북신문	유진섭 시장,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시민 참여 당부
10월 27일	위키투리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현판식 열어
10월 27일	전라일보	전북민예총,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미술제 개최
10월 30일	오마이뉴스	한 편의 대서사시...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 '감동'
11월 4일	위키투리	동학농민혁명으로 만나는 창작태권소리극, 소리릭 시즌3, '태권유랑단 녹두'
11월 7일	대전일보	[사진뉴스] 온양온천역 광장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전시
11월 8일	뉴시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개남 장군 추모제'개최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11월 9일	전라일보	원광대, 2021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국제학술대회 개최
11월 11일	부산일보	11일 하동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식 열려
11월 14일	인천일보	여주시, '2021 동학학술대회' 열고 해월 최시형 재조명
11월 16일	뉴시스	전북도의회 문건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현장 방문
11월 19일	새전북신문	정읍 덕천 초등학교, 동학농민혁명 특화 학교
11월 22일	NEWS1	정읍 동학농민혁명 동상'불멸, 바람길'제작 순조...내년 5월 제막
11월 28일	경향신문	'4·19혁명 기록물'·'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 재개
11월 29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 27일 관련법 개정을 위한 학술대회 열려
11월 29일	중도일보	"동학 농민 영령들에게 고개 들 수 있어 가장 기뻐다"
12월 5일	프레시안	이재명"죽창 들고 목숨바친 동학혁명군 희생, 반복 않겠다"
12월 6일	경향신문	'녹두장군' 쓴 소설가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 별세
12월 6일	위키트리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12월 6일	새전북신문	'남원도 동학의 고장이다' 제3회 남원동학문화제 개최
12월 7일	전민일보	정읍시 시기동 통장협의회,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동창
12월 8일	농민신문	정읍농협,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기금 전달
12월 9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94년 그들, 그림 되어 돌아오다'전 개최
12월 12일	경북도민일보	영덕서 '영해동학혁명' 정신 되새긴다
12월 13일	지이코노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시, 혁명정신 잇는 국제컨퍼런스 연다
12월 13일	위키트리	옥천에서 동학영령 달래는 진혼제 열려
12월 13일	뉴시스	동학군 넘었던 '장성 갈재 예길' 국가지정문화재 됐다
12월 15일	당진시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하며 기념제 개최
12월 15일	프레시안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군 한달문의 '옥중 한글편지', 국가문화재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 접수·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참고

2021. 12. 10^{FRI}

—

2022. 05. 01^{SUN}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www.1894.or.kr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063-536-1894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 전라북도

돌아와
다
1894년 그들, 그림되어
歸還



@donghak.189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획전시
#전시회추천 #정읍